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6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얼음 깨기

나의 사랑하는 책

윌리엄스 목사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눈물로 성경을 읽어 주시며 기도 하시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어머니가 물려주신 믿음과, 그 믿음의 토대가 되었던 ‘나의 사랑하는 책’, 곧 성경이었습니다. 이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은 C. D. 톨만(C. D. Tillman) 목사는 곧바로 곡을 붙였습니다. 이 찬송은 부흥 집회에서 처음 불린 이후,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널리 애창 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단순히 성경책 자체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 주는 가장 귀한 보화와 같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힘겨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 찬송가 가사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나의 사랑하는 책」은 성경에 대한 찬양인 동시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믿음을 전수해 준 영적 부모에 대한 아름다운 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최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하고 있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나의 일상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교회행사

5월

1-5일	더함공동체 태국 단기선교
3일	어린이주일 / 오렌지데이
10일	아버지주일 / 더가족세미나 5기 개강
23-24일	더함공동체 여름수련회
30일	어와나 지역 올림픽
31일	더가족 세미나 5기 종강

6월

7,14일	풍삼초 이끄미 세미나 5기
14일	어와나 1학기 종강
15-17일	어와나 EBS
20일	더깊은 선교학교 개강 / 결혼 예비학교 개강
26-28일	더원 공동체 여름수련회

경배 찬양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네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선교

[오경섭 안병이 선교사]

캄보디아

1. 한국방문을 통해 드릴 선교보고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누는 통로 되게 하소서
2. 캄땡툼 사역 가운데, 4곳의 지역, 4일간 이어질 사역 가운데 허락하신 만물이 가장 좋은 생명을 나누는 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소서
3. 현재와 같이 PMCI와 협력 사역을 함께 이어가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역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소식

1. 호스트패밀리 모집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믿음의 가족이 되어 정서적 지지와 생활의 도움을 나누는 선교 사역입니다. 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유학생 알뜰 장터

유학생들이 여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기부 받습니다. 안 입고 걸어두고 있는 옷, 옷이 많아서 계절이 지나도 잘 꺼내입지 않는 옷들을 기부해주세요. 모집) 1층 사무실 앞

3. 풍삼초 이끄미 세미나

진공첫 1~6기 수료 성도 중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끄미 교육을 희망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끄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정) 6/7, 6/14 2회

한 문장 큰 울림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만큼 지혜롭고 순수한 마음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조지 뮐러(George Muller)-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1-4장 초반까지의 핵심 주제는 교회 안의 분쟁 문제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여러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지적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내용보다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람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는 진리임을 밝히며, 성도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1. 은혜의 망각(6-7절)

바울은 이제 우리 심장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비극은 바로 ‘자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지혜와 물질,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자기 소유인 양 여기며, 그것을 자랑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 결과 파를 나누고, 서로를 비교하며, 심지어 형제를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강과 재물, 직분과 은사, 그리고 자녀들까지 과연 내 힘으로 이룬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마치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인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고, 조금 덜 가진 이를 무시하거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삶”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겸손을 잃고 독선이 되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경쟁과 다툼의 현장으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의 자리에서 내려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눔] 최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나요?

2. 십자가의 실종(8절)

고린도교회의 분쟁 이면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였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도 성공과 인정,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가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의 삶을 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4장9절에서 그는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로마의 개선 행렬을 배경으로 한 비유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왕이나 장군들은 행렬의 맨 뒤에 끌려와 공개적인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영광과 인정을 받는 존재가 아님을 뜻합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에 조롱과 멸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붙들 어 준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에서도 성공과 명예를 함께 누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처음 받은 복음에서 떨어진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자랑하거나 서로를 판단하는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참된 연합은 사람을 높이는 데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미 아닌 삶으로 보여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나누어 봅시다.

나눔

[고린도전서를 통해 배우는 교훈 / 고린도전서 4장 6-21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우기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가까이 낮아질 수 있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가지게 하소서.